

## “베풀고 닦고 배우고 이루겠습니다”

### 2008 선재의 발원

불기 2552년, 단기 4341년 서기 2008년, 무자(戊子)년, 쥐띠의 해. 한 해를 규정하는 이름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디 이름뿐이겠습니까? 사람마다 새해를 맞는 다짐과 감회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중생도 차별하지 않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은 새해의 첫날에도 우주법계를 두루 비추어 줍니다. 새해 새 아침, 선재는 작은 손으로 또박또박 가슴에 발원의 글귀를 새겨 봅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빠짐없이 새우신 네 가지 큰 서원(四弘誓願)을 선재도 세워 봅니다.



“기쁨 나누는 한 해 되세요” 우주 법계에 맑은 소리를 퍼뜨리며 희희의 춤을 춘다. 부처와 중생, 생과 사 등 모든 경계를 초월하며 한바탕 공양으로 베풀어지는 영산재는 법계의 흥겨운 잔치다. 온 인류가 이 장엄한 잔치의 기쁨을 나누길 기원하는 육천법등대 학생들은 ‘새해에는 영산재가 꼭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되길 바란다’며 연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글·사진=박재환 기자

#### “베풀며 살겠습니다”

선재는 지난 날 이웃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돌이켜 봅니다. 말로는 이웃을 위한 삶, 자연 환경을 위한 마음을 펴냈지만, 막상 열마나 실천했는가를 되짚어 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차 안에서 혹은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과 노숙자를 보면 눈을 돌렸고, 길에 슬며시 휴지를 버리거나 음식물을 지나치게 남기고 오물을 함부로 투기한 일도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선재는 새해 아침에 다짐해 봅니다. 자신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받는 이웃이 없게 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날마다 ‘베풀는 삶’을 다짐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선재의 베푸는 삶이 이어지는 한 일체중생이 다 제도되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란 것을.

#### “닦으며 살겠습니다”

선재는 또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얼마나 굳은 신념으로 정진 해 왔는가? 들끓는 무명번뇌에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수행이 부족한 탓임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번뇌를 끊으려 하기도 못하는. ‘이건 어떻게 저건 어떻게’ 하며 지식으로 이해하고 이론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현실에 안주 해 온 자신의 나약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행의 방법을 몰라서도 아니고 수행의 필요성을 무시해서도 아니지만 늘 마음을 다잡고 정진하기 보다는 닦쳐 온 상황을 모면하며 열중했던 지난 날을 깊이 잠회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생

활 현장에서 늘 수행의 자세를 버리지 않겠다고, 늘 밝고 맑은 것을 생각하고 한시도 악에 물들지 않고 연꽃처럼 드높은 기상으로 정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 합니다.

#### “배우며 살겠습니다”

선재는 향을 사르고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배웠고 얼마나 알았으며 또 무엇을 더 배워야 할까?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배운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은 것도 떠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재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생각해 봅니다.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경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어록을 통해 조사들이 말하는 ‘진면목’을 배운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자음 머리가 맑아져 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살아 있

는 매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자신이 먼저 깨어 있어 무엇이든 배우고 그 배움으로 지혜로 승화시켜 자비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 “이루며 살겠습니다”

선재는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생각해 잠깁니다. 살아오는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이루어 진 것보다는 이루지 못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부족한 이유도 있고 터무니없이 큰 것을 바랐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재는 스스로 세운 목표를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매진하지 못한 적이 훨씬 많음을 돌이켜 반성합니다. 그리고 이루는 삶을 위해 자신에게 알맞은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바치는 삶을 다짐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에게 송

곳 같이 엄한 삶을 다짐합니다. 선재는 큰 것을 이루기 위해 남을 해치는 것보다는 작은 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먼저는 자세를 더 귀하게 여기겠다고 자신과 약속합니다.

#### 새해 새아침 선재는 기쁩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 살피고 살아갈 시간들에 네 가지 큰 발원을 새겨 넣으며 선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충만하게 차오르는 희열을 느낍니다. 네 가지 큰 발원은 자신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중중무진한 인드라망 속 하나의 구슬임을, 그리고 선재는 굳게 믿습니다. 자신이 세운 네 가지 큰 발원이 빛을 발하여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혀 줄 것을. 임연태 기자

#### ● 2008년 신년특집 48면 발행

<b>A 2008년 새아침 선재의 발원</b>	
사홍서원의 삶	2-5면
연천 원심원사의 새해 첫 새벽예불	7면
각 종단대표 신년법어	8-9면
쥐의 해, 쥐와 불교	11면
<b>B 수행으로 잘 살기</b>	
내 안에 불심 있다	1-2면
새아침에 만난 선지식 월운 스님	8-9면
제12회 수행수기 공모 당선작 발표	11면
<b>C 지금 읽는 불서 한권, 성불의 씨앗</b>	
불교전문서점 어디 있나요?	1-3면
좌담, ‘불서읽기 활성화 방안은?’	4-5면
불서읽기 ‘현장’ 이야기	6면
2008 히트예감 상품	8면
권기종 교수의 ‘나의 삶 나의 불교’	11면
새연재 ‘중국불교의 거사들(1)’	12면

#### ● 새로운 현대불교를 만나세요

**중구불교의 거사들**  
 <60호부터 시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김진무 박사가 쓰는 거사열전.

**‘허허당 스님의 ‘세상만사’**  
 <66호부터 1면> 허허당 스님의 그림과 춘천살인의 계승이 깨달음의 비수가 되어 날아옵니다.

**우리 학회소식 게재**  
 <66호부터 12면> 불교관련 학회들의 활동상과 비전 등을 소개합니다.

**부산경남 뉴스 한 면에**  
 <66호부터 5면> 부산경남지역 뉴스를 한 면에 집중편집해 보다 알차게 보도합니다.

**함께가요 ‘강의실’로**  
 <66호부터 23면> 특강, 명강의 현장을 동국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거연숙씨가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031)387-5400 1 팩 스 031)387-5409  
 휴대전화 010-7504-4521 (김영희 변호사)  
 017-535-0685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진 변호사)

謹賀新年

## 수행과 전법으로 정진하는 조계종

### 종정 도림 법전

원로회의의장	종 산	총무원장	지 관
중앙총회의의장	자 승	교육원장	청 화
호 계 원 장	법 등	포교원장	혜 총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